

제14회 전국

농구리 전통민요 경향대회



-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 13일(수)
- 장소 |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주최 |



양양문화원
Yangyang cultural center

후원 |

양양군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우리의 전통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목차

동구리 경창대회는	3
대회사	4
축사	6
축사	8
축사	10
대회순서	12
참가 가사모음	13
양양10경	60





동구리 경창대회 는 !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의 세조대왕 강원도 순행일지에 의하면 세조 12년(1466년) 윤 3월 14일 세조대왕이 강원도를 순행하기 위해 금강산을 거쳐 양양 낙산사를 지나 연곡리에 머물며 왕이 직접 명하여 농가를 잘 부르는 이를 모아 장막 안에서 노래를 하게 하였는데

그중에서 양양의 관노 '동구리'가 가장 뛰어나 세조대왕이 명하여 아침 저녁을 먹이고 악공(樂工)의 예로 수가(隨駕:임금을 모시고 따라가던 일)하게 하였으며 유의(襦衣)1령을 내려주었다는 세조실록에 근거하여, 국왕이 농가 경창대회를 현장 임석하여 우수 소리꾼을 발굴하였다는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당시의 명창 '동구리'를 기리기 위하여 양양문화원에서는 2001년부터 동구리 경창대회를 10회 개최하여 왔으며, 2011년 대회부터는 강원도 내 대회로, 2017년도부터는 전국대회로 격상하여 전통민요를 발굴하여 소리꾼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 회 사



양 양 문 화 원 장
박 상 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악인 여러분!

해를 거듭해 갈수록 명창대회로 발전해가는 동구리 경창 대회에 전국에서 달려오신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4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하 군수님과 이종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산자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 하면서 수준높은 예술적 감성과 소박하고 순수한 전래민요가 폭넓게 전승되고 있는 전통문화의 강국입니다.

전통민요는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리워진 노래이므로 우리 선조들의 소박한 정서와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 무형의 문화자원인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처칠경은 “전통을 위한 사랑이 나라를 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소리를 발굴해내고 보존 전승해 가면서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국악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에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경기민요, 서도민요, 남도민요 등 분야별 최고수
다섯분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닦아오신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라며 참가한
모든 팀들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처럼 양양에 오셨으니 산자수명한 양양의 정취도 만끽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양 양 군 수
김 진 하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수 김진하입니다.

대지에 머무른 햇살이 점점 짧아져 가고, 붉게 물들었던 단풍은 낙엽으로 지며 가는 가을에 대한 아쉬움을 더합니다.

하지만 깊어 가는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아쉬움을 덜어주는 듯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제14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우리 군을 방문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리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박상민 양양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통민요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내 삶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내 안의 소리뿐만 아니라 저마다의 매력적인 소리를 마주하는 뜻깊고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술가에게 재능이란 ‘토양’ 과도 같습니다. 그 토양은 성실함을 통해 만들어 가며, 그 성실함으로 꽃피운 예술성은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은 강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담고 계신 기량을 마음껏 꽃피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정으로 만들 낸 다양한 소리를 감상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양양군의회 의장
이 종 석

따뜻한 차 한 잔과 음악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드는 가을에, 제14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열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 최고의 소리꾼이었던 관노 동구리를 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창대회가 강원도 대회에서 전국대회로 격상되며 어느덧 1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리를 잊지 않도록 오늘의 경창대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상민 양양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군을 방문해 주신 소리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양양군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 정신을 계승하고, 그 아름다움이 잊혀지지 않도록 널리 알리는 자리입니다. 전통민요가 생소해지고 경창이 아득해지는 요즘,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이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져오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소리꾼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소리와 열정이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본 대회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소리, 우리의 문화유산이 후대에 이어져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건재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조시대부터 이어져온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어 민요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권위있는 대회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많은 분들이 감동받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축사



국회의원
이양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제14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박상민 양양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회를 격려해 주시고자 함께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는 조선 세조 12년(1466년),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대회입니다.

올해로 열네번째를 맞이한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는 매년 규모가 커지고 열기도 무르익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낳은 최고의 실학자이자 우리 양양군에서 부사를 지내신 ‘연암 박지원’ 선생님께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전통 예술인들의 참여 속에 화려하게 펼쳐질 이번 대회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전통음악이 나아갈 방향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경향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전통민요가 화려한 명맥을 이을 수 있도록 양양문화원과 소리꾼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소리꾼 여러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 회 순 서

- 개 회
- 대회사
- 축 사
- 세조대왕 입장 및 개회선언
- 심사위원 소개
- 공연

〈1일차〉

일반부 개인 예선

〈2일차〉

대학부, 일반부 개인, 일반부 단체 본선

초청공연(2팀)

- 심사 발표 및 시상
- 폐회

※ 본 대회일정 및 시상내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 가사 모음

강원도아리랑	14	십이령바지계꾼 노래	36
경사거리(경발림)	15	양산도	36
공명가	16	양양 서면 아라리	37
궁초맹기	19	찾은 서면 아라리	38
금강산타령(경기민요)	19	양양지방상여소리	39
긴난봉가	20	유산가	40
자진난봉가	21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41
남원산성	23	인제뗏목아리랑	41
노랫가락	23	장기타령	43
농부가	26	정선아리랑	44
밀양아리랑	27	제비가	49
백중놀이(꽃방아타령)	27	진도아리랑	50
비나리	28	집장가	51
상복골농요	29	청춘가	51
상주함창가	31	초한가	53
성주풀이	31	출인가	55
소춘향가	33	태평가	56
신고산타령	34	한강수타령	57
신만고강산	35	한오백년	58
신아리랑	35	흥타령(남도민요)	59

강원도아리랑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마라
누구를 괴자고 머리에 기름

아주까리 정자는 구경자리
살구나무 정자로 만나보세

열라는 콩팔은 왜 아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 여는가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정든 님 오기만 기다린다

산중의 귀물은 머루나 다래
인간의 귀물은 나 하나라

울타릴 꺾으면 나온다드니
행랑채를 다 부셔도 왜 아니나와

흙물의 연꽃은 곱기만 하다
세상이 흐려도 나 살타이지

머나먼 천리 길 찾아 왔건만
보고도 본체만체 돈담무심

감꽃을 주으며 헤어진 사랑
그 감이 익을 때 오시만 사랑

영창에 비친달 다 지도록
온다던 그님은 왜 아니오나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 만나보세

풀벌레 구슬피 우는 밤에
다듬이 소리도 처량쿠나

*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경사거리(경발림)



1. 중원 지변방이요 일세는 요란한데 삼산 반락에 청천외요
이수중분의 백로주란다. 예
* 어데로 가자고 날만 졸라. 어데로 가자고 지그령직신
날만 조리조리 졸조리 따라 안성에 청룡가잔다. 예
2. 수락산 폭포수요. 오오 동구재며 만리 만리재라.
약잠재며 누에머리요 용산삼개로 예 들렀단다. 예
* 연산에 김덕선이 수원에 북문지어 나라에 공신되어 수성옥이
와류감투 짝 눌러쓰고 어주 삼배마신 후에 앞에는 모흥갑이
뒤에는 권삼득이 송흥록에 십만옆에 쌍화동 세우고 어전
풍악을 팡팡 치면서 장안 대로상으로 가진 신래만 청한다. 예
3. 강원도 금강산에 유점사 법당 뒤에 느릅나무 가지가지마다
서천서역국서 나오신 불상 오십삼불이 분명하단다. 예
* 관동팔경 구경을 가자 강릉의 경포대 양양의 낙산사 울진의
망양정 삼척에 죽서루 고성의 삼일포 통천의 총석정 평해에
월송정 간성의 청간정이란다.
놀이줄기는 설악산 신흥사란다. 예
4. 바람이 불려는지 나무 중동이 거드러 반춤 추고 억수 장마가
지라는지 만수백수무산에 매지구름이 펴퍼졌단다. 예
* 서도팔경 구경을 가자 삼등의 황학루 성천의 강선루
개천의 무진대 영변의 약산대 강계의 인풍루 의주의 통군정
안주의 백상루 평양이 영광정이란다.
놀이줄기는 부벽루 대동강이라. 예

공명가



공명(孔明)이 갈건야복(葛巾野服)으로 남병산(南屏山) 올라 단(壇) 높이 묻고
 동남풍 빌 제동에는 청룡기(靑龍旗)요 북에는 현무기(玄武旗)요
 남에는 주작기(朱雀旗)요 서에는 백기(白旗)로다
 중앙에는 황기(黃旗)를 꽃고 오방기치(五方旗幟)를 동서사방으로
 좌르르 벌이어 꽃고 발 벗고 머리 풀고
 학창흑대(鶴擎黑帶) 띠고 단에 올라 동남풍 빌은 후에
 단하(壇下)를 굽어보니 강상(江上)에 둥둥 떠 오는 배
 서성(徐盛) 정봉(丁奉)의 뱀 줄로만 알았더니 자룡의 배가 분명하구나 즉시 단하(壇下)
 로 내려가니 자룡선척(子龍船隻)을 대(待)하였다가 선생을 뵈옵고 읊(損)하는 말이
 「선생은 체후일향(體候一向)하옵시며 동남풍 무사히 빌어 계시나이까」
 「동남풍은 무사히 빌었으나 뒤에 추병(追兵)이 올 듯하니 어서 배를 돌리어 행선(行
 船)을 하소서」
 자룡이 여짜오되
 「소장(小將) 하나 있사오니 무삼 염려가 있사오리까」
 즉시 배를 타고 하구(夏口)로 돌아갈 제 주유(周瑜) 노숙(魯肅)더러 하는 말이
 「공명은 제 아무리 상통천문(上通天文) 하달지리(下達地理) 육도삼략(六韜三略)을 무불
 능통(無不能通) 할지라도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동남풍 빌기는 만무로구나」
 말이 맞지 못하여 풍운(風雲)이 대작(大作)하며 동남풍 일어날 제
 검정 구름은 뭉게뭉게 뇌성벽력(雷聲霹靂)은 우루루루
 바람은 지동(地動)치듯 번개는 번쩍 빗방울은 뚝뚝 떨어질 제
 주유 깜짝 놀라 북창을 열고 남병산 바라를 보니
 단상에 깃발은 펄펄 날부끼어 서북을 가리워질제
 이 때에 서성 정봉 양장(兩將) 불러 분부하되
 「공명은 천신(天神) 같은 모사(謀士)니 저런 모사를 두었다가는 일후후환(日後後患)이

미칠 듯하니 너희 두 장수는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남병산 올라가서 공명의 머리를
베어를 오라 만약 베어 오지 못하며는 군법시행(軍法施行)을 행하리로다」
성 정봉 분부 듣구 필마단기(匹馬單騎)로 장창을 높이 들고
서성을랑 수로(水路)로 가고 정봉을랑 육로(陸路)로 가서
남병산 올라가니 공명선생은 간 곳 없고 다만 남은 건 좌우단(左右壇) 지킨 군사뿐이
라 군사더러 묻는 말이
「선생이 어디로 가시더냐?」
군사 여짜오되
「발 벗고 머리 풀고 단에 올라 동남풍 빌은 후에 단하(壇下)로 내려가시더니 어디로
가신 종적(蹤迹)을 아지 못하나이다」
서성이 그 말 듣고 대경(大驚)하여 산하(山下)로 총총 내려가
강구(江口)를 점점 당도하니 강구에 인적은 고요한데
다만 남은 건 좌우(左右) 강 지킨 사공뿐이라 사공더러 묻는 말이
「선생이 어디로 가시더냐?」
사공이 여짜오되
「이제 웬 한 사람 발 벗고 머리 풀고 구절죽장(九節竹杖) 짚고 예 와 섰더니 강상(江
上)으로 웬 한 편주(扁舟) 둥둥둥 떠오더니 웬 한 장수 선두(船頭)에 성큼 나서 양손을
읍(揖)하고서 선생을 맞아 모시고 강상(江上)으로 행하더이다」
서성이 그 말 듣고 선척(船隻)을 재촉하야
순풍에 돛을 달고 따를 적에 앞에 가는 배 돛 없음을 보고
점점점(漸漸漸) 따르다가 선두(船頭)에 성큼 나서 하는 말이
「앞에 가는 배는 공명선생이 타셨거든 잠깐 노 놓고 닛 주고 배 머무르소서 우리 도
독전(都督殿)의 신신부탁하오니 말 한 마디 들읍시고 행선을 하소서」
공명이 뱃머리 성큼 나서 하는 말이

「서성이 말 들어라 내 너의 나라에 은혜도 많이 베풀고 동남풍까지 빌어 주었건만 무삼 혐의로 나를 해코자 하느냐 너희 두 장수는 부질없는 길을 따르지 말고 빨리 돌아가 내 말 갖다 도독전(都督殿)에 전하고 너의 국사(國事)나 도우려무나」

서성이 들은 체 아니하고 따를 적에 자룡이 뱃머리 성큼 나서 외여 하는 말이

「서성이 말 들어라 내 너를 죽일 것이로되 양국(兩國)의 화기(和氣)가 상(傷)할 듯하여 죽이지는 않고 살려 돌려 보내거니와 잠깐 이내 수완(手腕)이나 비양(飛揚)하노라」

철궁(鐵弓)에 왜전(矮箭) 먹여 각지(角指) 손 끼어 들고

좌궁(左弓) 우거질까 우궁(右弓)이 잦아질까

쭈앞날까 쭈뒤날까 각지(角指) 손 지긋 떼니

강상(江上)에 번개같이 빠른 살이 서성 뚫대 맞아 물에 텀벙 떨어지니

돛은 좌르르 용총 끊어져 뱃머리 피빙핑 돌아를 갈 제

재삼(再三) 연(連)하여 철궁(鐵弓)에 왜전(矮箭) 먹여 각지 손 지긋 떼니

강상(江上)에 수루루 건너가 서성 쓴 투구 맞아 물에 텀벙 떨어지니

서성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겨우 인사 차려 사공더러 묻는 말이

「저기 저 장수는 어떠한 장수냐?」

사공이 여짜오되

「전일(前日) 장판교(長板橋) 싸움에 아두(阿斗)를 품에 품고 순식간에 수만대병(數萬大兵)을 제쳐버리고 장판교로 돌아와도 아두(阿斗) 잠들고 깨우지 않았다 하시던 상산(常山) 땅의 조자룡이로소이다」

[서성이 할 일없어 빈 뱃머릴 본국(本國)으로 돌리며 자탄(自嘆)하고 하는 말이]

[한종실(漢宗室) 유황숙(劉皇叔)은 덕(德)이 두터워 저런 명장(名將)을 두었건만

오왕 손권은 다만 인자(仁慈)뿐이라 천의(天意)를 거역(拒逆)치 못하여 나 돌아만 가노라]

궁초댕기



* 무슨짝에 무슨짝에 부령 청진간 님아 신고산 열두고개 단숨에 올랐네

1. 궁초댕기 풀어지고 신고산 열두고개 단숨에 올랐네
2. 백년 궁합 못잊겠소 가락지 죽절비녀 노각이 났네
3. 어랑천 이백리 굽이굽이 돌아 묘망한 동해바다 명태잡이 간다네
4. 바람아 봄바람아 네 부지마라 머리단장 곱게한 것 모두다 풀린다
5. 치마폭 잡은손 인정없이 매치고 궁초댕기 팔라당 황초령 고개를 넘누나
6. 장군 십년을 상사로 보내니 무덤만 가까이 주름이 잡혔네
7. 궁초댕기 단장하고 신고산에 뵈올때는 한아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8. 살뜰한 우리 님 상처만 남기고 어디론지 사라져 마음 아프게 하누나
9. 황혼이 깃든 봉래산성 오늘도 쓸쓸히 다 저물었네
10. 울리고 웃기고 마음을 조이고 남의 속 몰라주는 야속한 사랑
11. 사랑에 겨워서 등 밀었더니만 가고나 영절에 무소식이로구나

금강산타령 (경기민요)



1. 천하명산 어디메뇨 천하명산 구경갈제
동해끼고 솟은산이 일만이천 봉우리가
구름같이 버렸으니 금강산이 분명구나
2. 장안사를 구경하고 명경대에 다리쉬어
망군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노
바위위에 얹힌꿈은 추모하는 누흔뿐이로다

3. 종소리와 염불소리 바람결에 들려오고
 옥류금류 열두담이 굽이굽이 흘렀으니
 선경인 듯 극락인 듯 만물상이 더욱좋다
4. 기암괴석 절경속에 금강수가 새음솟고
 구름 줄기 몸에 감고 쇠사다리 더듬어서
 발 옮기어 올라가니 비로봉이 장엄구나
5. 만학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구만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비류직하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6.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 놓고 앉아 보니
 창파에 나는 백구 쌍거쌍래 한가롭다
 봉래방장 영주산은 구름밖에 솟았구나
7. 금강아 말 물어보자 고금사를 다 일러라
 영웅호걸 재자가인이 몇몇이나 왔다 갔노
 물음에 대답은 없어도 너는 응당 알리로다

긴난봉가



* 아하 에헤야 에헤 에헤 어허야 어렴마 둥둥 내 사랑아나.

정방산성(正方山城) 초목(草木)이 무성(茂盛)한데
 밤에나 울 닭이 대낮에 운다
 오금이 오실오실 찹고 골머리 사지통(四肢痛) 나는 건
 임자로 연하여 난 병이로다
 만경창파(萬頃蒼波)에 거기 둥둥 뜬 배야
 게 잠간 닻 주어라 말 물어보자
 슬슬 동풍에 굶은 비 철철 내리고
 시화(時和)나 연풍(年豐)에 님 섞여 노자
 사면십리(四面十里) 느러진 능파 속에
 임 찾아 갈 길이 망연(茫然)이로다
 침침칠야(沈沈漆夜)에 달이 떠야 좋지요
 이내 마음 달뜬 건 매맞을 징조로다
 만경창파에 거기 둥둥 뜬 배야
 한 많은 이 몸을 신고나 가려마
 봄비는 보슬보슬 나리고 휘날어진 능수버들 가지엔
 물방울 듣는 것도 서글프구나
 굵이치는 거센 물결에 갈매기 둥둥 떠 놓고
 돛단배 두서넛 포구로 떠 들어온다
 저기 저 산 너머 고운 임 갖다 두고
 보고 싶은 심정을 달래며 혼자서 애태우네
 세상만사에 뜻이 없어 모든 시름 잊으려고
 산중으로 들어를 간다
 오동추야(梧桐秋夜) 휘영청 달 밝은 밤
 귀뚜라미 구슬피 우는 소리
 임 여원 이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네

자진난봉가



* 에헤 에헤야 어야더야 어허야 어려힘마 디여라 내 사랑아

넘어간다 넘어 넘어 간다
 자주 하는 난봉가 훔훔 넘어 간다
 물 속에 잠긴 달은 잡힐 듯 말 듯 하구요
 정든 임의 심중은 알 듯 말 듯 하외다
 실죽밀죽 잡아댕길 줄만 알았지
 생사람 죽는 줄 왜 몰라주나
 사랑 사랑 사랑아 내가 놀던 사랑아
 한아름 덩씩 안구서 단 둘이 놀던 사랑아
 이 몸이 둥둥 떠 저 백운 타면
 임 상봉하기가 비난지사(非難之事)로다
 남산 위에 범나비는 쭉지만 펄펄 나는데
 연당 안에 금잉어는 꼬리만 살살 두른다
 한 잔을 들고 또 한 잔을 드니
 아니 나던 심정이 저절로 난다
 무정방초(無情芳草)는 연연(年年)이 오건만
 한 번 간 우리 님은 가고 영절(永絶)이라
 요놈의 종자야 내 치마폭을 놓아라
 외볼로 창창 감친 건 가물에 콩 튀듯 한다
 세사(世事)는 모두 다 금삼척(琴三尺)이요
 생애(生涯)는 도무지 주일배(酒一盃)로다
 사랑가고요 님이 마저 가면은
 이 세상 백년을 누굴 믿고 사나

시집의 살이는 할지말지한데
 호박의 박넝쿨은 지붕을 넘네

남원산성



(후렴) 음 - 음 어야 어야 디여
둥가 허어 둥가 둥가 내 사랑이로 구나

1.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 문전 바라보니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떴다 봐라 저
종달새 석양은 늘어져 갈마귀 울고 능수버들 가지 휘늘어진대 피꼬리는 짝을 지어
이산으로 가면 피꼬리 수리루
2. 옥양목 석자 없다고 집안 야단이 났는디 새버선 신고 속없이 뒷 하러 또 내 집에 왔나
3. 앞 집에 큰 애기 시집을 갔는데 속없는 저총각 생명 낫다더라
4. 니가 나를 불려면 심양강 건너가 이 친구 저 친구 다정한 내 친구 설마 설마 설마
서설마 제일 천하 내 친구지 니가 내 사랑이지

노랫가락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 열녀는 가가재라 송악산 내리는 안개 용수봉의 굶은비 되어
화형제 낙처자하니 봉우유신 하오리라 선죽교 맑은 물에 원앙선을 띄워 놓고
우리도 성주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밤중만 월색을 쫓아 완월장취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강 현판달아 무궁화 옛 들길에 광명의 새봄이 다시 왔다
삼신산 불로초를 여기 저기 심어 놓고 삼천리 벌은 가지 줄기줄기 꽃이로다
북당의 학발양친을 모시어다가 연년익수 아무리 풍우가 삼한들 피는 꽃을 어이 하리

인연없는 그 사랑을 잊어 무방 하련마는,
든 정이 병이 되어 사르나니 간장이라,
지금에 뉘우친들 무삼 소용.

공자님 심으신 남게 안연 증자로 물을 주어,
자사로 벼은 가지 맹자 꽃이 피엿도다.
아마도 그꽃 이름은 천추만대의 무궁환가.

울 밑에 벽오동 심어 봉황을 보랏더니
봉황은 제 아니 오고 날아드나니 오작이로다.
동자야 저 오작 쫓아라 봉황이 앓게.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믿을 만한 사시절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든,
하물며 남의 님 정이야 어이 진정으로 믿을소냐.

운종용 풍종호라 용이 가는 데 구름이 가고,
범 가는 데 바람이 가니 금일송군 나도 가요.
천리에 님 이별하고 주야상사로 잠 못 일워.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로 흐르는 물이 옛 물인 듯 있을소냐
사람도 물과 같으니 가고 아니.

나비야 청산가자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날 저물며는 꽃에서라도 자고가자
꽃에서 푸대접하면 잎에서라도 자고가자.

청산리 벽계수야 쉬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알뜰살뜰 맺은 사랑 울며 불며 헤어지니.
아프고 쓰린 가슴 어이 달래 진정하랴.
아마도 자고 청춘이 이로백발.

세파에 시달린 몸 산간을 의지하니.
승방의 늦은 종 소리 이내 설움을 아뢰는듯.
아서라 다 떨쳐 버리고 염불공부나 하여 볼가.

만균을 늘어 내어 길게 길게 노를 꼬아
구만장천 가는 해를 휘휘칭칭 잡아매어
북당의 학발양친을 더디 늙게 하리로다.

사랑도 거짓말이요 님이 날 위함도 또 거짓말
꿈에 와서 보인다 하니 그것도 역시 못 믿겠구려
날같이 잠 못 이루면 꿈인들 어이 꿀 수 있나.

사랑도 하여 보고 실망 실연도 당했노라.
오동추야 긴긴 밤에 기다리기도 하였노라.
쓰리고 아픈 가슴을 쥐고 울기도 하였노라.

청산이 불로 하니 미륵이 장생하고
강한이 무궁하니 백구의 부귀로다.
무리도 이 강산 풍경에 분별없이 늙으리라.

청류벽 사월천에 녹음방초 승회시라.
편주에 술을 싣고 벽파로 내려가니.
아마도 세상영육이 꿈이런가.

언덕에 들 국화는 서리 속에 애련하다.
못 휘는 절개라고 송죽만을 자랑하리.
연약한 화초라한들 한뜻 지켜 피었구나.

왔소 나 여기 왔소 천리타향에 나 여기 왔소
바람에 날려를 왔나 구름 속에 쌓여 왔나.
아마도 나 여기 온 것은 님보려고

백두산 떼 구름 지고 두만강상에 실안개 끼니.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고 된 서리 칠지.
님이 올지 사랑이 올지 가이(개)만 홀로 짓고 있네

가고 못 올 님이면 정이나 마저 가져 가지
님은 가고 정만 남으니 정 둘 곳이 난감이로다.
이 정을 어디 두었다 님 오실 때에 풀어 볼까.

창외삼경 세우시에 양인심사 양인지라.
신정이 미흡 하여 날이 장차 밝아오니.
다시금 나삼을 부여잡고 후기약을.

그옥한 산 비탈에 홀로 섰는 두견화는
지극히 위태타마는 자흥에 겨워 방실방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로 한들한들.

명사의 해당화야 나비 몸을 괴로 마라.
고움이 항상이며 청춘인들 매양이라
일후에 낙화지며는 후회막급.

백사청송 무한경에 해당화 붉어 있고.
벽파상에 갈매기는 벼를 찾아 노니는데
한가한 저 범선은 춘경을 좇아 오락가락.

백운간 옷을 떨고 강릉별개 들어가니.
평포호색 이십리요 경개절승 경포대라.
아희야 배 자로(자주) 저라 달맞이 갈까.

한평생 허덕이면서 남은 것이 그 무엇인가.
담소화락 엄병덤병 매양일 줄만 알았더니.
야속한 무정세월이 이내 청춘만 앗아 갔네.

님 그린 상사몽이 귀뚜라미 낮이 되어,
추야장 긴긴 밤에 님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슬피 울어 깨워 볼까.

달같이 뚜렷한 님을 저 달과 같이 달아 놓고,
달 달이 그리던 정을 어느 달에나 풀어 볼까.
달보고 긴 한숨 짓자니 저 달 지는 줄 몰랐구나.

내 한을 누구를 주고 누구의 한을 가져다가,
한평생 지나긴 밤을 한 속에서 새는구나,
한 중에 말 못 할 한이 더욱 설워.

내가 술을 즐기어 먹나 광약인 줄을 알면서도,
일편단심 먹은 마음 굽이 굽이 슬움이라.
오늘도 술이 아니면 마음 붙일 곳이 바이 없네.

깊은 산 깊은 골에 밤이 들어 더 깊으니,
물 소리 고쳐 놓고 벌레 소리 유난하다.
나그에 시흥에 겨워 잠 못 일워.

백두산석 마두진이요 두만강수 음마무라.
남아이십 미평국 이면 후세수칭 대장부랴.
아마도 이글 지은이 남이장군.

옥으로 함을 새겨 님도 들고 나도 들어,
금거북 자물쇠로 어숙비숙이 채워 놓고,
명천이 내 뜻을 받아 열쇠 없이.

명사십리 해당화는 망양정의 경계로다.
명화일지 꺾어 들고 평해풍광 희롱하니,
백석청송 연충헌에 월송정이 상쾌로다.

농부가



여 여 여 여루 상사디여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 내 말을 들어보소
어화 농부님 말 들어요
남훈전 (南薰殿) 달 밝은데 순 (舜)임금의 놀음이오
학창의 푸른 대 솔이 산신님의 놀음이오
오뉴월이 당도하면 우리 농부 시절이로다
패랭이 꼭지에다 장화 (蓑花)를 꽂고서
마구잡이 춤이나 추어 보세
여 여 여 여루 상사디여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 내 말을 들어보소
어화 농부님 말 들어요
전라도라 하는데는 신산이 비친 곳이라

우리 농부들도 상사소리를 맥이는데
각기 저정거리고 너부령 거리네
여 여 여 여루 상사디여
두리 둥둥 개강맥 개강맥 갱갱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 내 말을 들어보소
어화 농부들 말 들어요
캄캄한 어둔 밤은 멀리 멀리 사라지고
삼천리 너른 땅에 햇빛이 밝았구나
산명수려 (山明水麗) 이 강산은
우리 농군님의 자랑이로세
여 여 여 여루 상사디여
여허 여허 여허루 상사디여

여보소 농부들 말 듣소 어화 농부들 말 들어
우리가 농사를 어서 지어 팔 구월 추수하여
우격지격이 쓸어들여다가 물 좋은 수양수침
덜커덩딩 방아를 찧세
어화 어화 여어루 상사디여
여보소 농부들 말 듣소 어화 농부 말 들어
충청도 충북송은 주지가지가 열렸고
강릉 땅 당대추는 아그데 다그데 열렸단다
어화 어화 여어루 상사디여
아나 농부들 여보소 농부들 말 듣소

운담풍경근오천 (雲淡風輕近午天)은
방화수류 (訪花水柳)하여 전천으로 내려간다
어화 어화 여어루 상사디여
다 되었네 다 되어
서마지기 논 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로다
어화 어화 여어루 상사디여
떠 들어온다 점심 바구니 떠 들어온다
어화 어화 여어루 상사디여

밀양아리랑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있네
남천강 구비쳐서 영남루를 감돌로 벽공에 걸린달은 아랑각을 비치네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좀보소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 방긋

백중놀이(꽃방아타령)



백중놀이 (호미를 씻어 둔다고 해서 호미씨세) 칠월보름.
자아--- 농군님네---
우리 여름일두 다 마치고 했으니 우리 호미씨세 삼아 니나노
방아타령 하면서 백중놀이 한번 해 봅시다- 네에-

(후렴) 에-헤- 에헤야 어어라 우겨라 방아로 구나
나니가 난실 나리로 구나 니나노 방아가 좋소
좋오다 좋-구나

노들 강변에 비둘기 한쌍 푸른 콩 하나를 입에다 물고, 암놈이 물어 수놈을 주고, 수
놈이 물어 암놈을 줄 때, 암놈 수놈이 어루는 소리 늙은 과수는 단뱃질 하구, 젊은 -
과수는 에루화 밤뱃짐 싸누나.

비나리



천개 우주 하날이요 지개조축 땅 생길제
일월영택 빛을 밝혀 만물이 생겨날제
산지조종은 백두산이요 백두산 천지연에
단군왕검 홍익인간 금수강산 생겼으니
삼강오륜이 으뜸이라

여천지 무궁이라 원아는 금여찬데
차일은 사바세게 남섬은다 부주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내 각 가정과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몸주대살 세다하니
몸주대살 풀고가자

국태민안 범년자 시화년풍 년년이 돌아돌고
이씨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야
봉황이 중추 생겼구나
봉황놀러 대궐짓고 대궐앞에는 육조로다

몸주대살 직성살 살 풀어서 거리살
원근 도중에 이별살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입어 거상살 거상 벗어 탈상이라
장인 삼촌에 복채살 동네방네 불난살
이웃지간에 회살살 도적난데 실물살
흙을 달아 토살이요 돌 달으면 석살이라
산나무 목신살 죽은 나무 동토살

오영문 하각산에 각도각읍을 마련할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제 백호로다
종남산 안산되고 과천 관악산 화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막고 한강수 둘러싸니

산에 올라 산신살 들로 내리니 들농살

물로 내리니 용왕살이요 바깥마당에 벼락살
안마당에 회룡살 지붕마루에 용충살
혼인대사에 주당살 마루대청에 성주님살
건넌방에 건웅살 안방삼칸접어들어
이벽저벽에 벽파살 내외지간 공방살
애기난데는 삼신살 내금신도 조왕신
외금신조왕대신 아궁이금덕귀
굴뚝은 굴때장군 물두멍은 용녀부인

가루독엔 세이요각시 콩독판독 마태장군
사알강 밑에는 땡그랑각시 거리거리서낭살
무랭이무랭이 서낭살 돌무랭이도 서낭살
만경창파 뜯서낭을 무지개발로 휘어디가
원강천리로 소멸하니 건구건명 이택가중에
마안사가 대길하고 백사가 여일하고
맘과 뜻과 잡수신데로 소원성취 발원이라

상복골농요



모심는소리

하늘중천에 뜬 구름은 비나 줄려고 떴지
골목골목 나선 색시는 누구를 불라고 나섰나

산이야 높아야 골이나 깊지
조그만 여자숙이 얼마나 깊나

설악산 산지골에 실안개 돌고
우리집 문전에 정든님 오네

놀다가 죽어도 원통한데
밤낮을 모르고 모만 심네

심어주게 심어주게 또 심어주게
바다같은 요논빠미 또 심어주게

나도야 나클적에 다같이 컸건만
무슨에 팔자로 머슴살이만 하나

아들딸 못 낳는다고 산제불공 말고
야밤중에 오는 손님 문뻗겨 주세

김매는소리

1. 농민아리(미나리소리)

심심하고 양양한데 질꾸레기 불러보세
 매여주게 매여주게 손을 세워 매여주게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지고
 모시적삼 입던몸에 삼베적삼 웬말이나
 질꾸질삼 잘한여자 울릉발이 실어주고
 질꾸질삼 못한여자 매나공공 때려주게
 복골개울 맑은물에 배차씻는 저처녀야
 곁에곁있 제쳐놓고 속에속있 나올주오
 오늘해는 걷갔는지 골골마다 그늘졌네

동강소리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산넘어 연줄가네
 그기어디 연줄이나 우리부모 명줄일세
 그늘졌네 그늘졌네 골골마다 그늘졌네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높아 그늘졌지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반공중에 떴는해는 서산마루 넘어가네
 이슬아침 만난동무 해질걸음 이별일세
 낙산사 의상대 끝에 고기낚는 저 선비야
 거기고기 낚지말고 이내몸을 낚아주오

상주함창가



- | | |
|---|--|
| 1. 상주함창 공갈못에
연밥따는 저큰악아
연밥 줄밥 내따줄게
우리부모 섬겨다오 | 4. 저기가는 저처자야-
못줄일랑 잡아다오
못줄일랑 내잡erma
새참이나 내다다오 |
| 2. 문어야 대전복 손에들고
친구집으로 놀러가니-
친구야 벗님은 간곳없고
조각배만 돌아난다 | 5. 이빠미 저빠미 다심어노니
또한빠미가 남았구나
지가야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지 |
| 3. 능청능청 저배리 끝에
시-누 올케 마주 앉아
나도야 죽어 후생가면
낭군먼저 섬길라네 | 6. 고초 당초 냅다해다
시집살이만 못하더라
나도야 죽어 후생가면
시집살이는 안할래요 |

성주풀이



*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대 활 연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야

1. 성주야 성주로구나 성주근본이 어디메냐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 솔씨밭아 공동산에 던져 더니마는 그솔이 점점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구나 도리기둥이 되었네 낙낙장송이 찍벌어 졌구나

- * 대활연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로구나
놀고놀고 놀아봅시다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2.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 가인이 그누구나우락 춘분 미 백년 소년 행락이 편시춘
아니놀고 무엇허리 한송정 술을 베여 조그마게 배를모아 한강의
띄워놓고 술이며 안주 많이 많이 실어 강릉 경포대로가자

- * 에라 만수 에라대신이야 대활 연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3. 왕왕현왕왕현 북소리는 태평연호를 자랑허고 돌이부는 피리소리
쌍봉황이 춤을 추고 소산반죽 첫대의소리 어깨춤이 절로나누나

- * 에라만수 에라대신이야 대활 연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4. 반갑네 반가워 천리춘풍이 반가워 더디도다 더디도다
한양행차가 더디어 남원 옥중 추절이 들어
이화 춘풍이 날 살렸구나

- * 에라만수 에라대신이야 대활 연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5. 이덕성주는 와가성주 저덕성주는 초가성주 한택간에 공택 성주
초년성주 이년성주 스물 일곱에 삼년성주 서른일곱사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시흔 일곱이로다

- * 대활연으로 설설이 나리소서

소춘향가



춘향(春香)의 거동(舉動) 보라
 오인 손으로 일광(日光)을 가리고 오른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죽림(竹林) 보인다
 대 심어 울하고 술 심어 정자(亭子)라
 동편(東便)에 연정(蓮亭)이요 서편(西便)에 우물이라
 노방(路傍)에 시매고후과(時賣故侯瓜)요
 문전(門前)에 학종선생류(學種先生柳)
 긴 버들 휘늘어진 늙은 장송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 활활 춤을 춘다
 사립문 안에 삼사리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꼬리치는
 저 집이오니 황혼에 정녕히 돌아를 오소
 떨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간장을 다 녹이느냐
 너는 어연 계집 아희관데 나를 종종 속이느냐
 아하 너는 어연 계집 아희관데 장부간장을 다 녹이느냐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花時)에 해는 어이 아니 가노
 오동야월(梧桐夜月) 달 밝은데 밤은 어이 수이 가노
 일월무정(日月無情) 덧없도다 옥빈홍안(玉鬢紅顏)이 공로(空老)로다
 우는 눈물 받아 내면 배도 타고 가련마는
 지척동방천리(咫尺洞房千里)로다 바라를 보니 눈에 암암

신고산타령



*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야 더어야 내 사랑아

- | | |
|---|---|
| 1. 신고산이 우루루 함흥차가는 소리에
구고산 큰애기 반보짐만 싸누나 | 9. 후치령 말깨다 국사당 짓고
임 생겨지라고 노구메 정성을 드리네 |
| 2. 공산야월 두견이는 피나게 슬피 울고요
강심에 어린 달빛 쓸쓸히 비쳐 있네 | 10. 불원천리 허위단심 그대 찾아 왔건만
보고도 본체만체 돈담무심 |
| 3. 가을바람 소슬하니 낙엽이 우수수 지고요
귀뚜라미 슬피울어 남은간장을 다씩이네 | 11. 백두산 천지에 선녀가 목욕을 했는데
굽이치는 두만강 뗏목에 몸을 실었네 |
| 4. 구부러진 노송 남근 바람에 건들거리고
허공중천 뜬 달은 사해를 비춰주노라 | 12. 가지 마라 잡은 손 야멸치게 떼치고
갑사댕기 팔라당 후치령 고개를 넘누나 |
| 5. 휘늘어진 낙락장송 휘어 덩석 잡고요
애닯은 이내 진정 하소연이나 할거나 | 13. 지저귀는 산새들아 너는 무삼 회포 있어
밤이 가고 날이 새도 저대도록 우느나 |
| 6. 산수갑산 머루 다래는 얼크러설크러 졌는데
나는 언제 입을 만나 얼크러설크러 지느나 | 14. 허공중천 뜬 기러기 활개바람에 돌고
어랑천 깊은 물은 저절로 핏핑 도누나 |
| 7. 오동나무를 꺾어서 열녀탑이나 짓지요
심화병 들은 입을 장단에 풀어 줄거나 | 15. 울적한 심회를 풀 길이 없어 나왔더니
처량한 산새들은 비비배배 우누나 |
| 8. 백두산 명물은 들쭉 열매인데
압록강 굽이굽이 이천리를 흐르네 | 16. 간다온단 말도 없이 훌쩍 떠난 그 사랑
야멸찬 그 사랑이 죽도록 보고 싶구나 |

신만고강산



- * 어어화- 벗님네야 우리님은 어디갔나
어화 - 좋다 어화 좋아 우리님을 찾아가세
1. 만고강산 유람할제 삼신산이 어드메뇨
죽장 짚고 풍월실어 봉래산을 찾아갈제
서산에 해는지고 월출동력 달이뜨니
 2. 만고강산 유람할제 만학천봉 어드메뇨
경포명월 가락실어 단발령을 넘어갈제
저산은 천봉이요 물은 잔잔 백곡이니
 3. 만고강산 유람할제 낙락장송 어드메뇨
백결폭포 선경실어 낙산사를 찾아갈제
초아에 춘광춘생 만화방춘 꽃이피니

신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장단에 소를 모는 저 목동아
무등산 화전밭은 어데 가고
멋쟁이 아가씨만 넘나드느냐
신식 호텔이 생겼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콧노래 꿀을 비는 저 목동아
문경세재 넘든 님은 어데 가고
날씬한 자동차만 타고 넘느냐
신작로길이 생겼다네

십이령바지게꾼 노래



1. 춘양장을 갈 때의 노래

미역소금 어물지고 춘양장을 언제가노
가노가노 언제가노 열두고개 언제가노
시그라기 우는 고개 내 고개를 언제가노

한평생을 넘는고개 이고개를 넘는구나
가노가노 언제가노 열두고개 언제가노
시그라기 우는 고개 내 고개를 언제가노

한양가는 선비들도 이 고개를 쉬어 넘고
가노가노 언제가노 열두고개 언제가노
시그라기 우는 고개 내 고개를 언제가노

꼬불꼬불 열두고개 조물주도 야속하다
가노가노 언제가노 열두고개 언제가노
시그라기 우는 고개 내 고개를 언제가노

2. 돌아올 때의 노래

대마 담배곡물지고 흥부장을 언제가노
가노가노 언제가노 열두고개 언제가노
시그라기 우는 고개 내 고개를 언제가노

오나 가나 바지게는 한 평생에 내지겐가
가노가노 언제가노 열두고개 언제가노
시그라기 우는 고개 내 고개를 언제가노

오고 가는 원님들도 이 고개를 쉬어 넘고
가노가노 언제가노 열두고개 언제가노
시그라기 우는 고개 내 고개를 언제가노

꼬불 꼬불 열두고개 언제넘어 고향 가노
가노가노 언제가노 열두고개 언제가노
시그라기 우는 고개 내 고개를 언제가노

양산도



동원도리 편시춘하니 일촌의 광음이 애석하다.

*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 마라 장안의 호걸이 다 늙어간다. 에헤이 에~

양덕맹산 흐르는 물은 감돌아 든다하고 부벽누하로다

* 삼산은 반락에 모란봉이요 이수중분에 능라도로다 에헤이 에-

소슬단풍 찬바람에 짝을 잃은 기러기 야월공산 깊은 밤을 지새워 운다.

* 에라 놓아라 아니 못 놓겠네 능지를 하여도 못 놓겠네

양양 서면 아라리



물 본 기러기 꽃본 나비가 삼화봉접이 아니냐

나비가 꽃을 보고 바로 갈 수 있느냐

명지 같으네 바다에선 당새질 바람이 솔솔

일본 대포선 바람이 부니야 수달피 수건이 왔구나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갠데 나 넘어갈 고개가 한 고개가 있구나

저기 가는 저 남자야 중등에 맵시를 보아라

중절 모자 쓰고 가는기 요강뚜껑을 썼구나

낙숫대에 졸졸 끌구야 강가에루 들거든

대바구미 옆에 찌고 내 뒤를 졸졸 따라라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갠데 나 넘어갈 고개가 한 고개가 있구나

굴뚝에 연기는 바람에 쓸래가고

여자의 이내몸은 남자에 쓸린다

가매체 붙들고 통곡하지 말고

나 사는 고두로 달머심으로 오나라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갠데 나 넘어갈 고개가 한 고개가 있구나

담 넘어 갈적에는 풋나물 먹고 갔는데
문고리 발발 떨어 못 들어간다
문고리 붙들고 떨지를 말고
숨소리만 담귀 듣고 들어를 오게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갠데 나 넘어갈 고개가 한 고개가 있구나

짚은 서면 아라리



* 아리아리아리랑 쓰리쓰리쓰리랑 아리쓰리 고개로 날 넘겨주게
쿵따다 쿵따다 쿵따다

1. 설악산 중턱에는 실안개 돌고 달늑짐 문전에 건달이 돈다
낙산사 인경은 현산을 울리고 우리네 정든님은 나를 울린다
쿵따다 쿵따다 쿵따따 * 쿵따다 쿵따다 쿵따따

2. 백두산 진달래꽃 제아무리 고와도 내가슴에 피어나는 진정만은 못하리라. 산천초
목 물각유주도 임자가 있는데 나라구 임자없이 혼자만 사느나
쿵따다 쿵따다 쿵따따 * 쿵따다 쿵따다 쿵따따

3. 이별도 서러운데 두견소리 애간장태우고 슬픔꽃에 눈물뿌리네
공동묘지야 호출장은 오늘도 왔다갔건만 나는 왜 살라구 빠드득 빠드득 하는가.
쿵따다 쿵따다 쿵따따 * 쿵따다 쿵따다 쿵따따

양양지방 상여소리



상두열좌하, 상두열좌하, 상두열좌하

1. 어제피던 청춘 봄이 우는 소리가 원말이요
어허오- 어호오 어이남차 어호오
2. 초록같은 우리 인생, 아차하다 떠나갓소
어어호- 아호오 이이남차 어호오
3. 일가친척 만타 한들 대신 갈자가 어디있소
4. 간다 간다 떠나간다 이세상을 하직하고 북만산으로 떠나가요
어어호오 어이남차 어호오
5. 가도가도 끝이없네 북만산천이 어디매요
어어호 어호오 이이남차 어어오
6. 강원도라 장관 어기매가 명당이오
어어허오 어허오 어이남차 어허오
7.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박이 저승이요
어어호- 어호어 이이남차 어호오

유산가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
 죽장망혜 단표자로 천리강산 들어를 가니
 만산홍록들은 일년일도 다시 피어 춘색을 자랑하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은 창창울울헌데
 기화요초 난만중에 꽃속에 자던나비 자취없이 날어난다.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화간접무는 분분설이라.
 삼촌가절이 좋을시고 도화만발 점점홍이로구나.
 어주우우 축수 애산춘이라던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 사사룩하니 황산곡리 당춘절에 연명오류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에 높이 떠 두 나래 훨썬 퍼 펄펄펄 백
 운간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갈꼬 슬피운다.
 원산첩첩 태산은 주춤하여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락
 에- 허리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에 폭포수는 팔팔 수정럼 드리운 듯 이골물이 수루우루우욱 저골물이 살
 살 알의 열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저 평퍼저 년출지고 방울저 건
 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같이 흘러지니 소부허유 문답하던 기
 산 영수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은 천고절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일출낙조가 눈앞
 에 어려라 경개무궁 좋을시고.

육자배기



산이로거나 헤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오시난 임을 보내는 꿈아
오시난 임을 보내지를 말고

잠들은 나를 깨워를 주지
언제나 알뜰한 님을 만나서
긴밤 짜롭게 썰거나 헤

자진 육자배기



어허야 어허야 이히 이히 내로구나
어허 허허 어허어 허허 여루 산이로 거나 헤

나는 그대를 생각을 하기를 하루도 열두번이나 생각허는디
그대는 날 생각허는 줄 알 수 없구나 헤.

인제뻗목아리랑



나무 꼬는 소리 (운도소리)

영차 하니 영차	영차하니 영차	낙락장송 되었는데	영차하니 영차
이나무가 어디서 왔나	영차하니 영차	궁궐재로 명을 받아	영차하니 영차
대암산 상상봉에	영차하니 영차	어명소리 한마디로	영차하니 영차
낮이 면은 일광을 받고	영차하니 영차	만인간에 힘을 빌어	영차하니 영차
밤이 면은 이슬을 먹고	영차하니 영차	운도천리 수로천리	영차하니 영차
모진 비바람 시달리며	영차하니 영차	인제 합강에 나왔구나	영차하니 영차

인제뗏목아리랑

후렴 :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우수나 경칩에 물 풀리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가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창랑에 뗏목을 띄워노니 아리랑타령이 처량도하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앞 사공 뒷 사공 조심하게 포아리 물사품이 치솟는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합강정 뗏목이 많다더니 경오년 장마에 다풀렸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십년에 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이 변할 줄 뉘 알았나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을 타고서 술잔을 드니 만단에 서름이 다 풀리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쾌괭이 포아리 다지나니 덕두원 썩쟁이가 날 반기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에 서방님이 좋다더니 포아리 신영강이 아직일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을 타고서 하강을 하니 광나루 건달들이 손짓하네

아리아리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도지거리 주모야 술 거르게 보메기 여울에 떼 내려가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다가오 자고가고 잠자다가오 보름달이 다지도록 놀다가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놀다가 갈 마음은 간절한데 서산낙조에 해 떨어지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합강정 정자로 만나보세.

장기타령



1) 날아든다 떠든다 오호로 날아든다 범려는 간 곳없고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안으로
날아들고 한산사 찬바람에 객선이 두둥둥 예화 날아 지화자 에-

아하 에에 에헤요 아하 어허야 열삼마 두둥둥 내 사랑이로다 에-

2) 계명산 내린줄기 학의 등에 터를 닦아 앞으로 열두 간 뒤로 열두간 이십사간을 지
어 놓고 이집진지 삼년만에 고사한번을 잘 지냈더니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
을 낳으면 효녀로다 며느리 얻으면 열녀 얻고 말을 놓면 용마 되고 소를 낳으면
약대로다 닭을 놓면 봉이 되고 개를 놓면 청삼사리 네 눈백이 안마당에 곤드라졌
다 낮선 사람 오게 되면 꺼 경 꺽 짓는 소리 지전 깔죽이 물밀 듯 하노라 에-

니나나에에-니나나 니나나 니나나 니나나 널 너리고 나리소사 에-

3) 수로로도 천리로다 육로로도 천리로다 이천리 들어가서 양태결는 저 처자야 저 산
이름이 무엇이냐 나도 사주팔자 기박하여 양태결어 한 달이면 육장 보아 부모봉양
하느라고 그 산 이름을 몰랐더니 옛노인 하시기를 제주 한라산이라고 합디다 에-

지화자 에- 에에— 에에에에 지화자 지화자 지화자 지화자 널 너리고 나리소사 에-

- 4) 구경을 가자 구경을 가자 평양이 좋다니 구경을 가자 연광정 사처를 삼고 대동강 소주를 삼어 모란봉 곁들여 안주를 삼고 남북촌 한량이 다 모였구나 팔십명 기생 이 나비춤 출제 새장구 복판만 파광광 올려라 에-
아하아에- 에- 에헤이요 아하아 어허이야아 얼싸함마 두둥둥 내사랑 이로다 에-

- 5) 만첩청산 속 들어가서 호양목 한가지 찍었구나 서른 두짝 장기 만들어 장기 한판 두어 보자 한수한자 유황숙이요 초나라 초자 조맹덕이라 이차 저차 관운장이요 이포 저포 여포로다 코끼리 상자 조자룡이요 말마차 마초로다 양사로 모사를 삼고 오졸로 군졸을 삼아 양진이 상접하니 적벽대전이 예로구나 조조가 대패하여 화룡 도로 도망을 할제 관운장의 후덕으로 조맹덕이 살아만 가노라 에-

후렴)

지화자 에- 에에— 에에에에 지화자 지화자 지화자 지화자 널 너리고 나리소사 에-

정선아리랑



긴 아리랑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를 나를 넘겨주게

이밥에 고기 반찬을 맛을 몰라 못 먹나
사절치기 강냥이 밥도 맘만 편하면 되잖소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구름이 막 모여 든다

무릉도원 삼산호수에 도화는 만발했는데
 짝을 잃은 외기러기는 갈곳이 없네

한 평생 농사를 지어도 빗만덜컹치고
팔다리 허리가 쭈시고 아파서 나는 못 살겠네

간다지 못 간다지 얼마나 울었나
송정암 나루터가 한강수가 되었네

강물은 출러덩 뱃머리는 울러덩
그대 당신은 어디로 갈려고 이 배에 올랐나

명사십리가 아니라면은 해당화는 왜피며
모춘삼월이 아니라면은 두견새는 왜울어

천지조화로 눈비가 올라면 땅에 누기가 있듯이
눈도 비도 다오는데 당신은 왜 못오시나

오늘 갈는지 내일 갈는지 정수정망이 없는데
맨드라미 줄 봉숭아는 왜심어놨나

아우라지 강물이 소주 약주 같다면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모두 내 친굴세

이리오게 저리오게 내 옆으로 오게
석삼년 그리던 손목을 잡아나 보세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 주게
싸리굴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

꽃본나비야 물본기러기 탐화봉접이 아니냐
나비가 꽃을 보고서 그냥 갈수 있나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 그리워서 나는 못살겠네
저건너 저묵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올해도 날과같이 또 한해묵네

천리로구나 만리로구나 수천리로구나
곁에두고 말못전하니 수천리로구나

봄철인지 갈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 행화춘절이 날알려주네

강물은 돌고 돌아서 바다로나 가지만
나는야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나

정선같이 살기 좋은곳 놀러한번 오세요
검은산 물밀이라도 해당화가 핍니다.

금도 싫고 은도 싫고 문전옥답 다 싫어
민주벌판 신경 뜯을 우리조선 다 주게

뒷동산에 올라 보니 친정 동네 보이고
기약 없는 시집살이에 눈물만 흐르네

마당 웃전에 수삼 대궁은 늙고 늙더라도
우리집에 서방님은 부디 늙지 마세요

창 밖에 오는 비는 구성지게도 오잖나
비 끝에 돋는 달은 유정도 하구나

이 몸이 학이 되어서 훨훨 날 수만 있다면
수천 리 수만 리라도 님 찾아 가리다
시어머니 상사 나시니 안방이 넓어 좋더니
보리방아 물쥘놓니 시어머니 생각 나네

가랑비 세우야 내리지 말어라
정든 님 오시는 길에 풀잎이 젖는다
석세배 열댓 자를 석달 열흘을 찢더니
아실아실 좁고 나니 젖몸살이 낫네

세월이 갈라거든 저 혼자나 가지
알뜰한 이팔청춘을 왜 데리고 가나

청초홍초가 맵다고 한들 시집살이만 하겠나
혹독한 시집살이에 눈물로 산다네

우리가 살면은 한오백년을 사나
남 듣기 싫은 소리를 뭐하러 하는가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가고 싶어 가나

나뭇가지에 얹은 새는 바람이 불까 염려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 떨어질까 염려세

우리 어머니 나를 길러서 한양 서울 준댓조
한양서울 못 줄망정 골라골라 주세요

행주치마를 뽐뽐 말아서 옆옆에다 끼고
총각 낭군이 가지고 할 적에 왜 못 따라갔나

왜 생겼나 왜 생겼나 내가 왜 생겼나
남의 눈에 꽃이 되도록 내가 왜 생겼나

당신은 나를 알기를 흑싸리 껌질로 알아도
나는야 당신을 알기를 공산 명월로 알아요

나비없는 강산에 꽃은 피어 뒤틀리며
당신없는 요 세상에 단장하여 뒤틀하리

개구리란 놈이 뛰는 것은 멀리 가자는 뜻이요
이내 몸이 웃는 뜻은 정들자는 뜻일세

돌담 넘어 밭 한 뼨기를 건너가면 되련만
얼키고 설키었으니 수천리로구나

자진 아리랑

물 한 동이를 여다 놓고서 물그림자를 보니 촌 살림하기에는 정말 원통 하구나
정선같이 살기 좋은 곳 놀러 한번 오세요 검은 산 물밑이라도 해당화가 핍니다
행주치마를 뚝뚝말아서 옆옆에다 끼고 총각낭군이 가자고 할 적에 왜 못 따라 갔나
노랑 저고리 진분홍 치마를 받고 싶어 받았나 우리 부모님 말 한마디에 울며불며 받
었지

살개바우 노랑 차조발 어느 누가 매주나 비 오고 날개는 날이면 단둘이 매려 갑시다
우리 어머니 나를 길러서 한양 서울 준댔죠 한양 서울 못줄망정 골라 골라 주세요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딱주기 님의 맛만 같아면 올같은 흥년에도 봄살아나지
돈이생겼나 사랑이 식었나 둘 중에 하나같은데 눈을 뜨고도 볼 수 없는 건 당산마음
이라

당신은 나를 알기를 흑싸리 껍질로 알아도 나는야 당신 알기를 공산명월로 알아요
놀다가세요 자다가세요 잠만 자다 가세요 그믐초승달이 뜨도록 놀다가 가세요
오뉴월 삼복더위에 모달리 수건은 왜 썼나 오다가다 정든님 만나면 잠자리 할라고 썼
지

나뭇가지에 얹은 새는 바람이 불까 염려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떨어질까 염려라
건너갑니다 넘어갑니다 아라리 건너갑니다 여기오신 여러분한테로 아라리 건너갑니다
나는 널 안 고 너는 날 안고 단둘이 꼭 껴안고 여산 폭포 돌 굴 듯이 달달 굴러보세 뒷집
에 숯 돌이 좋아서 냇을 갈러 갔더니 뒷집 색시 옆눈질 바람에 낫날이 훌쩍 넘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엮음 아리랑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람 구암자 유점사 법당 뒤에 칠성단을 모아놓고 팔자 없는
아들 딸 낳아달라고 산재불공 말구서 타관 객지에 외로이 뜯 몸을 부디 꺾세 말어라

산진매야 수진매야 휘휘칭칭 보라매야 절골 밑에 풍경 달고 풍경 밑에 방울 달아
앞 남산 불까투리 한 마리 툇 차 가지고 저 공중에 높이 떠서 빙글뱅글 도는데
우리집에 저 멧구리는 날 안고 돌 줄 왜 몰라

당신이 날 마다고 울치고 담치고 열무김치 소금치고 오이김치 초치고 칼로 물 친 듯
이 툇 떠나가더니 평창 팔십 리 다 못 가고서 왜 되돌아왔나

영감은 할멈치고 할멈은 아치고 아는 개치고 개는 꼬리치고 꼬리는 마당 치고 마당
웃전에 수양버들은 바람을 맞받아치는데 우리집에 서방님은 낮잠만 자네

우리집에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얹어메고 찍어메고 장치다리 곰배팔이 노가지
나무 지게 위에 엽전 석냥 걸머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 사러 가셨는데 백봉령 굽이굽
이 부디 잘 다녀오세요

숙암 단임 봉두군이 세모재비 메밀쌀 사절치기 강냉이밥은 주먹같은 통로구에 오글박
짝 끓는데 시어머니 잔소리는 부싯돌 치듯 하네

네 칠자나 내 팔자나 네모 반 듯 왕골방에 섯별같은 낫요강을 발치만치 던져놓고 원
앙금침 잣베개에 꽃같은 너를 안고 잠자보기는 오초강산에 일 글렀으니 엉틀멍틀 장
석자리에 깊은 정만 두자

천포마을 다리 건너 각기산에 올라가 동굴 안을 썩 들어서니 웅장한 종류석 우뚝 솟
은 대석순 마리아상 부처상 석화꽃 장군석은 천지조화가 아니냐 한 번 보고 두 번 보
아도 볼수록 아름답구나

가다보니 감나무요 오다보니 옷나무요 없어졌다 엄나무 자빠졌다 잣나무 청실홍실 대
추나무 팡팡울려 뽕나무야 옹구 화루 죽두가리 앞에 놓고 앉았으니
임이오나 누었으니 잠이오나 등불을 돌아 놓고 침자를 돋우 비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잠시잠간 깜빡 조르니 새벽달이 지새네

앞으로 보니 옹니배기 뒤로 보니 반꼬두머리 번들번들 솟돌이마 박죽 잘근 툭툭 차던
우리 시어머니여 공동묘지 오시라고 호출장이 왔네

제비가



만첩산중 늪은 범 살찐 암캐를 물어다 놓고 에 어르고 노닌다
광풍에 낙엽처럼 벽허둥둥 떠나간다
일락 서산 해는 뚝 떨어져 월출동령에 달이 솟네
만리장천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복희씨 맺은 그물을 두루쳐 매고서 나간다
망당산으로 나간다 우이여 어허어 어이구
저 제비 네 어디로 달어나노
백운을 박차며 흑운을 무릎쓰고 반공중에 높이 떠 우이여 어허어 어이구
달아를 나느냐 내 집으로 훨훨 다 오너라
양류상에 앉은 피꼬리 제비만 여겨 후린다

아하 이에에 에헤에 에헤야 네 어디로 행하느냐
 공산야월 달 밝은데
 슬픈 소리 두견성 슬픈 소리 두견제
 월도천심 야삼경에 그 어느 낭군이 날 찾아오리
 울림비조 못새들은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 쌍거쌍래 날어든다
 말 잘 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 두루미 문채 좋은 공작
 공기 적다 공기 뚜루루루루 숙궁 접동 스르라니 호반새 날어든다.
 기러기 훨훨 방울새 떨렁 다 날아들고
 제비만 다 어디로 달어나노

진도아리랑



(후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흥흥 아라리가 났네.

1. 문전세재는 웬 고개가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로 구나.
2. 노다 가세 노다나 가세 저 달이 떴다 지도록 노다나 가세.
3. 만경창파에 두둥둥 뜬 배, 어기여차 어야디여라 노를 저어라.
4.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5. 사람이 살면은 몇 백년 사나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굴 둥굴 사세.
6. 해당화 한 송이를 와자지지끈 꺾어 우리 님 머리위에다 꽂아나 줌세.

집장가



집장군노(執杖軍奴) 거동(舉動)을 보라춘향을 동틀에다 쫓그라니 올려매고형장(刑杖)을
한아름을 디립다 덤석 안아다가춘향이 앞에다가 좌르르 펄뜨리고좌우 나졸들이 집장
(執杖) 배립(排立)하여분부 듣주어라 여쭈어라바로 아뢴 말삼 없소 사또 안전(案前)에
죽여만 주오

청춘가



- | | |
|---|--|
| 1. 이팔 청춘에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닦아를 보시다. | 6. 세상만사를 생각을 하며는
묘창해지 일속이로구나. |
| 2. 청춘 흥안을 네 자랑 말어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누나. | 7. 무정세월아 가지를 말아라
장안의 호걸이 다 늙어 가누나. |
| 3. 요지일월 순지건곤이요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 | 8. 세월에 가기는 흐르는 물같고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 같구나. |
| 4. 동두천 소요산 약수대 꼭대기
홀로 선 소나무 날같이 외롭다. | 9. 천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사네
못사는 세월을 허송을 말어라. |
| 5. 여울의 바둑돌 부디껴 희고요
이내 몸 시달려 백발이 되누나. | 10. 우연한 저 달이 구름밖에 나더니
산란한 이내심중 더 산란케 하누나. |

11. 살아 생전에 선심을 하여서
사후 영천에 극락을 갑시다.

12. 창밖에 오던 비 산란도 하더니
비 끝에 뜬 달 유정도 하구나.

13. 청춘 청춘을 말로만 말고요
청춘시절을 게을리 맙시다.

14. 술취한 강산에 호걸이 춤추고
돈없는 천지엔 영웅도 우누나.

15. 강상에 두둥둥 떠가는 저배야
한 많은 이몸을 싣고서 가거라.

16.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리고
정든 님 말씀에 내 가슴 풀린다.

17.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길래
정거장 마당이 한강수가 되었네.

18. 물속에 잠긴 달 잡힐 듯 말듯한데
정든님 심중은 알 듯 모를 듯.

19. 금수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정든님 없으면 적막강산이라.

20. 우리가 살면은 몇백년 사느냐
살아 생전에 선심을 합시다.

21.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에
꽃피고 새우니 봄철이로다.

22. 오동 추하에 달둥실 밝은데
이내덩덩 생각이 저절로 나누나.

23. 천리로구나 만리로구나
일성중 살면서 왜 이리 못보나.

초한가



만고영웅 호걸(萬古英雄豪傑)들아 초한승부(楚漢勝負) 들어 보소
절인지용(絶人之勇) 부질없고 순민심(順民心)이 으뜸이라
한패공(漢沛公)의 백만대병(百萬大兵) 구리산하(九里山下)십면매복(十面埋伏)
대진(對陣)을 둘러치고 초패왕(楚霸王)을 잡으랄제

천하병마 도원수(天下兵馬都元帥)는 표모걸식(漂母乞食) 한신(韓信)이라
장대(將臺)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千兵萬馬) 호령(號令)할 제
오강(烏江)은 일천리요 팽성(彭城)은 오백리라
거리거리 북병이요 두루두루 매복이라

간계(奸計) 많은 이좌거(李左車)는 패왕(霸王)을 유인하고
산(算) 잘 놓는 장자방(張子房)은 계명산(鷄鳴山) 추야월(秋夜月)에
옥통소를 슬피 불어 팔천제자 해산(八千弟子解散)할 제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추삼경(九秋三更)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외기러기 슬피 울어
객(客)의 수심(愁心)을 돋워 주고 변방만리 사지중(邊方萬里死地中)에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너의 패왕(霸王) 역진(力盡)하여 장중(帳中)에 죽을테라

호 생오사(好生惡死)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건마는
너희는 어이 하여 죽길 저리 즐기느냐
철갑을 고쳐 입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천금(千金)같이중한 몸이 전장검흔(戰場劍魂)이 되겠구나
오음(嗚泣)하여 나오면서 신세자탄(身勢自嘆) 하는 말이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金鼓)를 울리면서
강동(江東)으로 가겠더니 불행히 패망(敗亡)하니
어이 낯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뵈며

초강(楚江) 백성 어이 보리 전전반측(輾轉反側) 생각하니
팔년풍진(八年風塵) 다 지내고 적막사창(寂寞紗窓) 빈 방 안에
너의 부모 장탄수심(長嘆愁心) 어느 누구라 알아 주리
은하수 오작교는 일년 일차 보건마는

너희는 어이 하여 좋은 연분을 못 보느냐
초진중(楚陳中) 장졸들아 고향 소식 들어보소
남곡녹초(南谷綠草) 몇 번이며 고당명경(高堂明鏡) 부모님은
의문(倚門)하여 바라보며 독수공방 처자들은

한산낙목(寒山落木) 찬바람에 새옷 지어 넣어 두고
날마다 기다릴 제 허구한 긴긴날에
이마 우에다 손을 얹고 뒤편에 올라
바라다가 망부석이 되겠구나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젖 달라 짓어 울고 철난 자식 애비 불러
밤낮 없이 슬피 우니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남산하(南山下)에 장(長)찬 밭은 어느 장부 갈아 주며

이웃집에 빛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손가
첨전고후(瞻前顧後) 바라보니 구리산(九里山)이 적병이라
한왕이 관후(寬厚)하사 불살항군(不殺降軍)하오리라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디로만 갈거나

출인가



꽃고추 절이 김치 문어 전복 곁들여 황소주 꿀 타
향단이 들려 오리정으로 나간다. 아하아 오리정으로 나간다.
어느 년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다시 만나
그리든 사랑을 품안에 품고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아하아
에 어화동개 내 건곤 이제가면 언제 오로 오만 한을 일러 주오.
명년춘색 돌아를 오면 꽃피거든 만나볼까.

놀고가세, 놀고가세. 너고 나고 나고 너고만 놀고가세.

곤히 든 잠 향여나 깨울세라 등도대고 배도대며
찢래찢래 흔들면서 일어나요. 일어나요.
겨우든 잠 깨어나서 눈떠보니 이히이 내 낭군일세.
그리던 님을 만나 만단정회 채 못하여 날이 장차 밝아오니 글로 민망하노메라.

놀고가세, 놀고가세, 너고 나고 나고 너고만 놀고가세.

오늘 놀고 내일 노니 주야장천에 놀아볼까.
인간 칠십을 다 산다고 하여도 밤은 자고 오호
낮은 일어나니 사는 날이 몇 날인가.

태평가



- * 니나노~ 날리리야 날리리야 니나노
 얼싸좋아 얼씨구 좋다 벌 나비는 이리저리
 펄 펄 꽃을 찾아서 날어든다.
- 1.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는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 2. 청사초롱에 불밝혀라 잊었던 낭군이 다시온다
 공수래공수거하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 3. 춘하추동 사시절에 소년행락이 몇 번인가
 술취하여 흥이나니 태평가나 불러보자.
- 4. 장장추야 긴 긴밤에 실솔의 소리도 처량하다
 님을 그려 젖는 벼개 어느누가 알아주리.
- 5. 만경차파 푸른물에 쌍뿔단배야 게섰거라
 신고 간 님은 어디두고 너만 외로이 오락가락.
- 6. 꽃을 찾는 벌 나비는 향기를 쫓아 날아들고
 황금같은 피고리는 버들사이로 왕래한다.
- 7. 개나리 진달화 만발해도 매란국죽만 못하드라
 사군자 절개를 몰라주니 이보다 큰설움 또 있으리.

8. 학도 뜨고 봉도 뒀다 강상 두루미 높이 떠서
두 나래를 훨신편고 우줄우줄 춤을 춘다.
9. 작작요요 도리화는 장안호접 구경이요
금장병풍 모란화는 부귀자의 변화로다.
10. 거짓말 잘하면 쓸데있나 진정을 다한들 소용있나
한 번 속아 울어봤으니 다시 속지는 않으리라.
11. 만산홍록 우연화야 금수병을 돌렸는데
노류장화 꺾어들고 춘풍화류 희롱하세.

한강수타령



(후렴) 아하 아하 에헤요 에헤요 어허야 열사함마 둥게디여라 내 사랑아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위에 뗏목 위에 노래도 에루화 처량도하다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에루화 뱃놀이 가잔다	조요한 원색은 강심에 어렸는데 술렁술렁 배 띄워라 에루화 달맞아 가잔다
한강수야 네가 말을 하려마 눈물 둔 영웅이 몇몇 줄을 지은고	노들의 버들은 해마다 푸르는데 한강을 지키던임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
멀리 뵈는 관악산 웅장하고 뚝단배 두서넛 에루화 처량도하다	양구 화천 흐르는 물 소양정을 감돌아 양수리를 거쳐서 노들로 흘러만 가누나

앞 강에 뜬 배는 낚시질 거루요
뒷 강에 뜬 배는 님 실러 가는 배란다

푸르른 물결에 두둥 뜬 저백구
날과 같이도 에루화 외롭구나

한오백년



(후렴)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한 오백년 사자는데 웬 성화요

1.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임아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2. 백사장 세모래밭에칠성단을 몽고 임 생겨달라고 비나이다
3. 청춘에 짓밟힌 애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리
4. 한 많은 이 세상 냉정한 세상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5. 꽃답던 내 청춘 절로 늙어 남은 반생을 어느 곳에다 뜻 붙일꼬
6. 살살 바람에 달빛은 밝아도 그리는 마음은 어제가 오늘
7. 나리는 눈이 산천을 뒤덮듯 정든 임 사랑으로 이 몸을 덮으소
8. 지척에 둔 임을 그려 살지 말고 차라리 내가 죽어 잊어나 볼까
9.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런가 왜 이다지도 앞날이 암담한가
10. 고목에 육화 분분 송이송이 피어도 꺾으면 떨어지는 향기 없는 꽃일세
11. 여름밤 등불 아래 모여드는 불나비 화패를 자취함이 어리석구나
12. 으스름달밤에 기러기 소리 가뜩이나 아픈 마음 더욱 설레네
13. 청명한 달밤에 홀로 거닐며 가슴속 만단수심 달래나 볼까
14. 만산평야 넓은 들에 꽃이 피어도 임 여윈 이 가슴엔 수심만 가득

흥타령(남도민요)



* 아이고 대고 허허 성화가 났네 헤~

1. 구름같이 오셨다가 번개처럼 가시는 님을 생각하는 게 내 그렇지 쓸쓸한 빈방 안에
애를 태우니 병이 안들 소냐.

2. 꿈이 로다 꿈이 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꿈이
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 꿈을 꾸어서 무엇을 할거나

3. 맹렬아 맹렬아 맹렬아 맹렬아 맹렬아 맹렬아 잘 가거라. 나를 두고 가려거든 정마
저 가져가 정은 두고 몸만 가니 쓸쓸한 빈방 안에 외로이도 홀로 누어 밤은 적적 깊
었는데 오늘도 뜬 눈으로 이 밤을 새우네



양양10경

1경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은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아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본능의 강이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2경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1번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 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3경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슬령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러 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4경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5경



하조대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위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송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위에 하조대 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6경



죽도정

죽도정은『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둥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이다.

7경



남애항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1종 국가어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야산(陽也山)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어판장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체험 향이다.

8경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월 당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제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9경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출토된 신석기 유물과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이 전시, 재현되어 있다. 불 피운 자리가 발견된 움집터에 직접 들어가 보는 움집 체험과 깨진 빗살무늬토기, 움집을 복원하는 퍼즐 체험 등 특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마치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10경



양양 서핑로드

현북면~현남면 바다 일원에서는 어디에서나 검은 슈트를 입은 서퍼들이 점점이 바다를 유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심이 얕아 초심자들이 서핑을 시작하기 적합해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며 서핑의 성지라 불린다. 이 구역을 양양 서핑로드라 지명하여 10경으로 선정하였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역대 통합대상



제7회 통합대상



제8회 통합대상



제9회 통합대상



제11회 통합대상



제12회 통합대상



제13회 통합대상

※ 2020년도 제10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13회 행사사진



일반부 단체 최우수상



일반부 개인 최우수상



초청공연



수상자 단체사진

제14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향대회



행사장 안내



양양문화원
 Yangyang cultural center